

# 피도 랜덤 코어강화 가이드



# 목차

## I. 용어 정리

## II. 팬텀 스킬에 대한 이해

1. 보스에서의 스킬 중요도
2. 팬텀의 사냥
3. 팬스파인텀?

## III. 코어 강화

1. 가성비 라인
2. 25강 라인

## IV. 코어 강화에 대한 해설

1. 극한의 약식 강화
2. 무난한 약식 강화1
3. 무난한 약식 강화2
4. 일반적인 강화
5. 약식 풀코강
6. 종결급 풀코강



## 용어 정리

1

각 스킬의 첫 글자를 따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 얼(티밋 드라이브), 템(페스트 오브 카드), 로(즈 카르트 피날레) 등

2

탤런트 오브 팬텀시프는 숫자만 쓴다.

Ex: 2(탤런트 오브 팬텀시프 II), 3(탤런트 오브 팬텀시프 III) 등

3

강화형 스킬의 경우 마지막 스킬을 기준으로 한다.

Ex: 느(블랑 카르트/느와르 카르트)



# 팬텀 스킬에 대한 이해

## 1. 보스에서의 스킬 중요도

〈보스에서 스킬 점유율은 느>얼>템>로>>>>트=코〉

**느와르 카르트**는 5차 스킬과도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딜지분 20% 가량)

**얼티밋 드라이브** 역시 노쿨 주력기로서 꼭 강화가 되어있어야 한다. (딜지분 10% 가량)

**템페스트 오브 카드**는 얼티밋 드라이브의 연이은 상향으로 인해 약식 코강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딜은 얼드와 차이가 없지만 범위가 넓고 백샷이 가능해서 진지한 육성을 준비하시는 유저에게 코강이 추천된다.

**로즈 카르트 피날레**는 약식 코강에선 제외해도 되지만 본캐급에선 포함시켜야 한다. (딜지분 5% 가량)



필수!



본캐급에서 채택



풀코강에서만 채택



# 팬텀 스킬에 대한 이해

## 2. 팬텀의 사냥

1) **4차스킬**로 사냥: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며 캐논바주카, 언카운터블 애로우 등으로 사냥한다.

2) **2차+3차+4차스킬**로 사냥: 위의 방식보다 맵장악력이 뛰어나 최근에 많이 추천받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2차에 **카디널 블래스트**, 3차에 **애로우 플래터**, 4차에 **생츠퉈어리**를 들고 사냥한다.

카디널 블래스트와 애로우 플래터의 대미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면 코강이 필수이다.

플래터를 사용할 스펙이라면 생츠퉈어리는 자연스럽게 원킬이 나기 때문에 텔4가 필수 강화는 아니다.

3) **2차+4차스킬**로 사냥: 어센틱 포스 지역 전용 사냥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는 **그란디스에서 플래터 사냥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위 지역 일퀘를 위해서는 텔4도 강화해야 한다.



**강추!**



**아케인 리버에서 채택**



**그란디스에서 채택**



# 팬텀 스킬에 대한 이해

## 3. 팬스파인텀?

탤런트 오브 팬텀시프 1을 강화한다면 그 이유는 팬스파인텀, 즉 패스파인더의 1차스킬과 2차스킬을 쓰기 위함 뿐이다. 실제로 한 DPM표에는 이를 활용한 지표가 있으며 이론상 딜은 얼티밋 드라이브를 사용한 딜사이클보다 높게 측정된다.

하지만 이는 실전성이 매우 떨어진다.

첫째, 보스전에서 **팬텀의 핵심 유틸**인 다크사이트와 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차, 2차슬롯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움직이는 순간이 **딜로스**이다. 얼티밋 드라이브는 무빙샷이 가능해서 딜로스가 줄지만 팬스파인텀은 그런 거 없다.

셋째, 조작감이 크게 떨어진다. 패스파인더의 연계와는 달리 팬스파인텀의 연계는 매우 똑똑 끊긴다.

이러한 이유로 팬스파인텀은 코어강화 고려사항에서 아예 제거되었다.



# 코어 강화: 가성비 라인

## 1. 극한의 약식 강화



3중 3코: 보스전 주력기와 최소한의 사냥기

## 2. 무난한 약식 강화 1



3중 4코: 4차 스킬로 사냥하는 과거의 정식 코강

## 3. 무난한 약식 강화 2



3중 4코: 기록이 된 템오카를 버리고  
2차로 사냥하는 코강



# 코어 강화: 25강 라인

## 4. 일반적인 강화



2중 4코: 가장 일반적인 강화

## 5. 약식 풀코강



2중 5코: 유의미한 스킬을 모두 강화하는 방식

추천

## 6. 종결급 풀코강



2중 6코: 사실상 모든 스킬을 강화하는 방식



# 코어 강화에 대한 해설

비추

## 1. 극한의 약식 강화 -3중 3코-



‘나는 팬텀으로 카룻만 잡을 것이며 애정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분들께 권장된다.  
팬텀 스킬 중 보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얼티밋 드라이브**와 **느와르 카르트**를 채택한다.

사냥용 코어는 **탈런트 오브 팬텀시프 2**와 **4중 아무 거나 가져가도 된다.**  
**마릿수와 사냥 편의성 측면은 탈2를 채택하는 편이 훨씬 좋다.**

하지만 본인의 스펙을 고려해서 가져가야 할 필요도 있다. 둘 다 60강을 했을 때 기준으로 캐논 바주카가 1.5배 정도 강하다.  
(카디널 블래스트 60강: 387.36%, 캐논바주카 60강: 589.18%)

코어강화 레벨이 내려갈 수록 카디널 블래스트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진다는 점은 염두에 뒀야 할 것이다.



# 코어 강화에 대한 해설

추천

## 2. 무난한 약식 강화 1 -3중 4코-



보스전 주력기 3개(얼/느/템)와 사냥기 하나를 강화하는 전통적인 팬텀의 코강이다.

템페스트 오브 카드가 많이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해도 강화해두면 분명히 쓸모가 있다.

범위가 넓어서 상단 타격이 가능하고, 슬로우 장판 위에서 고정이속(130~110%)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백샷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메리트는 카오스 피에르, 카오스 벨룸, 스우, 루시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팬텀을 진득하게 키워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템오카 코강은 웬만해서 넣는 것을 추천한다.

사냥기는 역시 본인의 스펙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템4를 넣어봤다.

미래를 본다면 템2를 넣는 것이 웬만해선 낫다.



# 코어 강화에 대한 해설

무난

## 3. 무난한 약식 강화 2 -3중 4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템오카 무용론' 을 반영한 약식 코강이다.

템오카를 아예 코강에서 빼버리고 유효한 점유율이 나오는 로카피를 넣자는 의견이 꽤 늘고 있다.

템오카는 얼드와 같은 레벨로 코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누적딜이 줄어드는 스킬이라 꽤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다.

로즈 카르트 피날레의 장판딜은 보스 뿐만 아니라 사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강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 코어 강화에 대한 해설

추천

## 4. 일반적인 강화 -2중 4코-



타 직업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하는 2중 4코이다.

4칸만 사용하면서 6개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어 **칸성비가 가장 뛰어난 강화 방식**이다.

얼드, 느와르, 템오카, 로카피 이렇게 4개의 보스 코어를 넣고 남은 2자리에 사냥 코어를 넣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냥하는 장소에 따라 코어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 1) **아케인 리버에서는** 템3, 즉 플래터 혹은 어센션을 사용하면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템2와 템3을 강화한다.**
- 2) **그란드스월드에서는** 포스가 모자란 지역의 일퀘를 깰 때 생츠퍼리 원킬을 내기 위해 **템2와 템4를 강화한다.**

재료 코어만 남겨둔다면 얼/느/템/로/2/3에서 세르니움에 입성했을 때 손쉽게 얼/느/템/로/2/4로 갈아탈 수 있다.



# 코어 강화에 대한 해설

강추

## 5. 약식 풀코강 -2중 5코-



최근에 타 직업에서도 새롭게 논의가 나오고 있는 2중 5코이다.

보스에서 사용되는 4가지 스킬과 사냥에서 쓰는 3가지 스킬을 60강 하고 나머지 한 스킬을 30강 해주는 방식의 코강이다.

(일반적으로 코트 오브 암즈, 트와일라이트, 탤런트 오브 팬텀시프 / 中 1개 30강)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2중 5코의 장점은 1) 사냥터가 바뀐다고해서 코어 강화를 갈아엎을 필요가 없으며, 2) 2중 6코 풀코강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난 데다가, 3) 무릉도장에서 플래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2중 5코 재료를 뽑아 놓으면 세르니움에 간다고 코강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릉도장에서 플래터로 저층 스킵을 스위칭 없이 하는 것도 의외로 큰 메리트다.

단점이 있다면 코어칸을 5칸 잡아먹는다는 것 정도가 있다.



# 코어 강화에 대한 해설

고스펙

## 6. 종결급 풀코강 -2중 6코-



사실 여러분이 270레벨/60층 이상의 고스펙을 꿈꾸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강화하면 된다.

본 코강의 메리트는 1) (비록 점유율이 낮긴 하지만) 패턴 파훼용으로 트와일라이트를 쓸 때 딜로스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2) (역시 점유율이 낮긴 하지만) 상단 공격을 하거나 마오팬 스택을 쌓을 때 딜로스를 줄일 수 있고, 3) (굉장히 비주류인) 마오팬, 트와일라이트 사냥이 가능하고, 4) 사냥용/보스용 코어 스위칭이 가능해서 사실상 4슬롯만 사용할 수 있다.

보스와 사냥에서 모두 사용하는 얼/느/로 코어를 기본으로 둔 뒤 보스 갈 때는 템/트/코 코어를 장착하고, 사냥할 때는 2/3/4 코어를 장착하면 언제나 코어 4슬롯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점은 1) 스위칭을 위해 깔끔하게 묶인 코어를 찾는 데 코젼이 아주 많이 소모된다는 것, 2) 의외로 스위칭이 귀찮다는 것 정도가 있다.



# 아니 그래서 어케 하라는 거임

## 1. 짝먹

- 얼/느/2 3중 3코



## 2. 극저스펙/부캐

- 얼/느/템/4 3중 4코



## 3. 저스펙

- 얼/느/로/2 3중 4코



## 4. 중스펙

- 얼/느/템/로/2/3 ~ 얼/느/템/로/2/4 2중 4코



## 5. 고스펙

- 얼/느/템/로/2/3/4 2중 5코



## 6. 초고스펙

- 얼/느/템/로/2/3/4/트/코 2중 6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EPILOGUE

## 자료 출처

사용 폰트: KoPubWorld 돋움체

스킬 이미지: 나무위키 팬텀(메이플스토리)/스킬 항목

우측 하단 이미지: 메이플 인벤에서 주움

야 솔직히 팬텀 사기 아니냐

제작 후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월급 팬텀 좀 하고 집에 와서 한참을 더 만들었네요.

마박도로시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학생활을 대충 보내서 PPT 실력이 좋지 않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최대한 주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파랑/노랑은 팬텀 아이덴티티 색, 보라색은 보조무기 색이라서 골랐습니다.

야 솔직히 팬텀 사기 아니냐

제작자: 메이플 인벤 팬텀게시판 보딱

야 솔직히 팬텀 사기 아니냐

